

교수일반분과/어문학/03/

##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로 본 김흥호의 신앙

양재용

중세 천년의 가톨릭의 권력은 성서의 눈과 귀를 막아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부패한 가톨릭교회의 권력을 추락시킨 동력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년 11월 10일~1546년 2월 18)에서 시작된 종교개혁(Reformation)이었다. 루터와 올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년 1월 1일~1531년 10월 11일)의 신앙과 교리를 계승한 칼뱅(Jean Calvin, 1509년 7월 10일-1564년 5월 27일)의 신학은 스위스의 제네바를 신앙공동체로 승화시켜 중세의 가톨릭의 권력을 정치적 시민혁명으로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런 권력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배경은 성서의 말씀이었다. 루터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톨릭교회의 비성서적 관행과 부패에 대한 저항은 독일 국토의 전부에서 농민전쟁까지 유발시켰다. 루터의 혁명은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의 권력을 추락시켰고 하나님을 독점했던 교황의 권위는 무너지고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역사적인 민주적 사건이 일어났다. 칼뱅은 제네바를 개신교의 신앙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칼뱅의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전기를 만들었으며 개인이 직업으로 성공하는 것에 하나님의 소명을 주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예정론과 함께 인간을 죄의 문제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칼뱅의 신앙은 종교개혁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신앙 공동체로 발전되었으나 정치와 종교가 합병되어 종교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에 반하여 루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여 두 왕국으로 갈라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루터에서 출발한 개신교의 출현은 교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던 관행을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만나는 신앙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이태리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중세 천년동안 무시되었던 인간과 이성을 부활시켰고 과학의 발전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개인은 성경과 세상을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은 개인주의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14세기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와 16세기 루터와 칼뱅은 라틴어로 된 성서를 자국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하였고 이런 자국어로의 번역은 일반 시민이 자국어로 성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독점하던 교황과 감독 그리고 주교에서 일반 평민이 쉬운 자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만나는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중세인들이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중심이던 사회에서 개인이 중심이 되었고 맹목적인 신앙에서 이성적인 성서이해로 바뀌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을 받아들여 이성으로 성서를 해석하였고 따라서 행위만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도래하게 만들었다. 단테의 신곡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행위를 신앙으로 보는 전형을 제시했다. 행위가 신앙의 중심이 된 중세의 신앙의 문제에 반발하여 나온 것이 개신교다. 오직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이 오며 성서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원이라는 루터와 칼뱅의 개신교는 기존 신앙에서 혁명을 만들었으나 루터와 칼뱅을 믿는 개신교도들조차 자신들의 신앙과 다른 재세례파를 탄압하고 화형에 처하는 아이러니적 상황이 되었다. 종교적 탄압을 피해 자신들만의 가나안땅을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신정정치를 실현하려했으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인디언들과 연약한 노약자들을 마녀사냥(witch trial)의 희생자로 만들었다. 이런 칼뱅의 후예들이

저지른 악행과 반하여 루터는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여 더 이상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물론 강력한 종교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것은 루터의 종교적 후예들이 칼뱅의 후예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했으나 중세시대의 종교가 만든 폐단과 악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게 했다.

현재 김흥호는 해방 후 일본에서 귀국해 후학의 양성을 위해 용강중학교를 설립해 교장을 역임했고 고당 조만식 선생의 제자로 활동했으며, 한국의 근대 사상과 종교의 뿌리인 다석 유영모 선생에게 6년간 사사했으며 그의 사상과 신앙을 따른 제자이다. 김흥호는 한국의 전통문화나 타종교를 수용하였기에 다원주의 신앙으로 보이나 그의 말과 행동에 나타난 신앙에서 볼 때 그는 참된 기독교인이다. 김흥호는 1956년에 이화여대 교수가 된 이래로 1965년 미국 웨슬리감리교신학대학에서 종교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웨슬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전 미국 감리교단의 비숍(감독)이며 한국 감리교 명예 감독이었던 레인즈 목사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주 감리교회의 정목사로 등록된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교회에서 교목을 맡았고 이화여대 종교철학과에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흥호는 이화여대를 퇴임한 후에 1986년부터 2001년까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에서 기독교, 노자 장자, 주역, 양명학, 불교, 유교 등 동서양철학을 강의했다. 김흥호와 신앙과 사상을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대표적인 학자는 전 한신대 교수인 안병무와 전 감신대 교수인 변선환 그리고 전 연대교수인 김동길과 함석헌 선생이 있다. 1919년생인 김흥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김흥호의 신앙을 개신교 탄생 500주년이 막 지나는 시점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중심으로 조명하여 김흥호의 개혁적 신앙을 조명하고 한국교회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70-80년대는 경제적 성장만큼 교회는 외형적이며 물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 당시의 한국 교회의 종교 정신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중세의 종교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흥호는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이화여자 대학교회의 교목으로 봉사하면서 개신교 목사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서 45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김흥호는 동서양의 난해한 고전을 『사색』을 통하여 우리말로 쉽게 그 깊이를 표현하였다. 그는 일요일 오전 연경반에서 동서양의 원어 고전과 성경을 45년간 강의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난해한 동서양의 고전을 한글을 쉽고 단순하게 표현하여 일반인에게 접근하기 쉽게 해주었다. 이런 그의 공로는 루터나 칼뱅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서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큰 영향을 끼쳤다. 김흥호는 무아(無我)와 무욕(無慾)의 삶을 사셨고 평생에 하루 한 끼만 드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셨으며 거저와 기쁨으로 가르치셨다. 김흥호는 교회도 짓지 않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대학교회의 목사로서 월급을 받았으나 사회와 학교 그리고 학생들에게 환원했으며, 교회 내에 어떤 조직과 직분도 두지 않았다. 또한 김흥호는 재직했던 기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헌금을 많이 내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상관없다고 설교했다.

김흥호가 교회를 운영했던 방법과 목적은 순수하게 성서적인 입장이었다. 중세 시대의 가톨릭은 교황의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르쳤다. 루터는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여 성직자의 특권을 제거했다. 루터가 교회의 권력을 없애서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것과 같이 김흥호는 교회내의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목회자의 권력조차 포기했다. 김흥호는 목회자로서 3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목사 월급조차 받는 것을 거부했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받기는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김흥호는 또한 교회 내에 신도가 평등하도록 조직을 만들지 않았으며 따라서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두지 않았다. 이런 파격적인 행정의 파

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래에 모든 교인이 평등하다는 루터의 만인 사제설과 같다. 김흥호는 그의 신앙을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였고 그의 신앙과 사상은 제자들에 의하여 책으로 출판하였다. 김흥호가 목회를 했던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의 위주의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분위기였고 교회의 건축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시대였다. 그 당시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설교 중에 교회를 건축하거나 천국에 가기위하여 헌금을 강요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대세였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중세에도 교황은 시민들에게 헌금을 내면 지옥에 가는 것을 면제해주었고 성당을 건축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로 판단되던 시대였다. 김흥호도 교회를 짓는 것보다 루터가 자신의 내면의 신앙에 초점을 두었던 것처럼 내면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에 집중하였고 강당에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였다.

김흥호 선생은 1919년 2월 26일에 황해도 서흥에서 태어 나셨으니 2019년 2월 6일은 선생이 탄생하신지 100년이다. 김흥호 선생은 일반적으로 쓰는 선생의 의미를 넘어서는 선생의 초월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김흥호는 시대의 스승이자 선생이었고 한국의 사상계의 소크라테스인 다석(多夕) 유명모의 제자로서 생사(生死)를 초월해서 사셨고 인간이면 겪는 식색을 끊은 실존이었다. 김흥호가 2012년 12월 6일에 하나님의 곁에 가셨지만 김흥호의 사상과 신앙은 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고귀한 생각과 신앙은 김흥호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여 제자들에게 깨달아야 할 숙제를 남겼다.

이번 연구는 1980년도부터 그가 영면한 2012년까지 필자가 들었던 설교에 대한 기억과 그가 남긴 저서를 통하여 '선생'의 의미와 선생님이 생각하신 이상적인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향한 저항의 정치적 의미를 루터의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김흥호의 개혁적인 신앙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거듭남과 선생

루터와 김흥호가 인간을 보았던 공통적인 인간에 대한 통찰은 탐욕으로 가득 찬 죄인이 인간이라는 견해이다. "1520년대로 넘어가셔야 루터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탐심이 남아 있는 죄인이며 세례 후에도 죄인임을" 분명하게 주장한다(『루터선집』 432).

개신교 개혁을 이끈 루터의 인간에 대한 믿음은 한국의 기독교를 믿음을 한국의 전통위에 가졌던 신앙인 김흥호와 비슷하다. 김흥호가 하루에 한 끼를 먹은 것도 인간이 탐욕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했다. 김흥호의 스승인 다석이 한 끼를 먹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김흥호는 선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선생은 생과 사를 초월한 존재이다. 선생을 만나면 살고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 김흥호가 설교했던 선생의 의미는 종교의 세계인 4차원의 개념이다. 김흥호는 생전에 예수가 자신의 선생인데, 생전에 자신과 가까운 선생을 만나야 한다고 설교했다. 김흥호는 스승인 유명모를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명모의 제자가운데 함석헌도 있지만 한 끼를 실천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 유명모의 유일한 제자는 김흥호이다. 김흥호만이 한끼를 평생 실천한 제자로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본 제자이며 신앙을 삶으로 실천한 유일한 제자이다.

김흥호가 다석의 제자가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김흥호는 1947년에 정인보 선생을 찾아가 양명학을 배우고 정주 오산학교 교사로 있던 춘원 이광수를 찾는다. 춘원은 김흥호에게 오산학교 교장으로 온 유명모를 추천했고, 정인보도 김흥호에게 유명모를 추천했다. 김흥호는 1948년 봄 YMCA에서 성경을 강의하던 다석을 만난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북한산 구기동

계곡 폭포에서 다석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이라는 말에 김흥호는 귀가 뚫렸다고 한다. 다석은 67세에 자신은 세상을 떠난다고 선언했고 김흥호는 그 다음 날 스승의 장례를 치르려고 구기동의 선생님 댁으로 가던 길에 다석을 만났다. 그 순간 김흥호는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석이 아니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김흥호의 나이 35세인 1954년 3월 17일 오전 9시 5분에 김흥호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으며 이 때 가운을 찢는 깨달음에 이르렀고 평생 하루 한 끼만을 먹을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다. 김흥호는 다석을 만나서 자신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만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김흥호는 다석을 만나서 예수라는 선생을 알게 된 것이고 이런 만남은 근본적인 종교체험을 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김흥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 체험을 하면서 새사람이 되었다. 다석을 계승한 김흥호는 새사람은 식색에 초월한 사람이라 말했다. 김흥호는 무의 무불위(無爲 無不爲)의 경지로 세상과 식색(食色)을 초월하여 사셨기에 다석의 제자이다. 식색을 끊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나 김흥호는 식색을 끊고 건강을 찾았다. 유명모도 평생 아팠으나 한 끼를 먹고 건강을 찾은 것처럼 김흥호도 한 끼를 먹고 건강을 찾았다. 김흥호가 식색을 끊은 것은 욕망을 끊은 것이며,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식색을 더 근본적인 인간의 원죄로 다석과 김흥호는 본 것이다. 『신곡』의 「지옥」에서 단테는 인간의 죄의 경중을 따져서 지옥의 9곡에 가는 욕망을 큰 죄로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석의 제자인 김흥호는 인간을 탐욕으로 가득 찬 존재로 보았고 인간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식과 색을 끊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는 신앙을 가졌다. 김흥호는 죄의 원인인 욕망을 끊었고 신앙을 실천했으며 이 시대의 진정한 선생이었으며 세상나라에 사셨지만 하늘나라에 계셨고 세상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고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천국이 너의 마음에 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김흥호는 천국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았다. 김흥호가 한 끼만 드시고 기쁨에 넘쳐 사신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天國)에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세상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밑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의 나라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뤄진 나라도 아니며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라는 물음에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라고 답변했다(『루터선집 9』 390). 루터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으로 가는 구원은 자기 밖이나 죽음 너머가 아니며 “세상의 법이 아닌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의 나라”(토마스코프 지용원 편 28)로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내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들의 연합체”(양명수 33)이기 때문이다.

루터의 천국에 대한 해석에서 본다면 김흥호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점에서 루터의 신앙을 실천했다고 보아야 한다. 김흥호가 하루 한 끼만 먹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은 김흥호의 마음 즉 내면의 신앙을 따른 것이며 루터가 말하는 천국에서 김흥호가 살았다는 증거이다. 김흥호는 인간의 탐심이 세상의 죄를 낳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세상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인 김흥호는 늘 천국에 산 것이다.

루터는 ‘사람은 선을 행할 때에도 죄를 짓는다’고 1518년 『두 가지 정의에 관하여』(984)고 죄와 인간의 행동을 지적했다. 루터의 이런 생각은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여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917)는 것으로 원죄론에서 본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다. 1520년대에 루터는 「라토무스에 대한 반박」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탐심

이 남아있는 죄인이며 세례 후에도 죄인임”(『루터 선집』 432)을 분명하게 주장했다.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인 인간은 세례를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해도 욕망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기에 세상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그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식주체가 교황에서 개인으로 이동한 것이고 개인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주체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개인이 욕심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은 사라진다. 따라서 말씀을 해석할 때 개인의 욕심이 멀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돌아온다. 이것은 인간이 죄성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며 인간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죄성을 가진 본질에 대한 김흥호의 신앙은 김흥호가 인간적인 욕망을 끊어야겠다는 믿음을 가진 배경이다. 김흥호가 35살의 나이에 인간적인 본성을 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의식이 끊어지는 것이 시간 재단이며 시간에 무시간이 오는 순간으로 다석이 표현한 가온짜이며, 개인의 욕심이 멀하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체험하는 종교체험의 순간이다. 김흥호는 다석의 제자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한 점에서 예수의 제자이다. 그것은 한 끼를 먹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김흥호는 실천했다. 김흥호가 한 끼를 처음 먹을 때 해골과 같이 말랐다. 한 끼를 먹는 것은 영양의 부족인데 건강하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논리적 모순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김흥호의 신앙은 육신이 아닌 말씀으로 살았으며 거듭났다. 김흥호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김흥호가 시간재단인 가온짜이를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김흥호는 한 끼를 드시고 이화대학교에서 가장 강의를 많이 하였고 교회에서 거저로 봉사를 하셨다. 선생은 이화대학교회의 연경반에서 1965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45년을 가르치셨다. 김흥호가 했던 45년의 설교와 강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었고 선생의 기도는 천국을 상상하는 순간을 주었다.

## 2) 교회

중세시대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는 교회의 교황이었다. 종교개혁으로 교황에서 개인으로 권력은 옮겨졌다. 중세시대에는 개인의 신앙은 교회에 얽매어 종속되어서 개인이 성서를 읽고 주체는 되지 못했다. 루터는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여 성직자의 특권을 제거했다. 중세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고 흔드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진리까지 독점했다. 루터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sup>1)</sup>에서 성직자들의 특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국가 즉 세상권력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온다는 로마서 13장 1절을 근거로 “통치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두고 교회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의 권위주의를 없앴다”(양명수 재인용). 김흥호도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인 목사의 특권을 반납했다. 교회를 통한 구원을 얻는 중세의 가톨릭의 전통을 버리고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만나는 신앙의 자유를 실천하시는 개신교의 성서 전통을 김흥호 선생은 대학교회에서 세웠다. 김흥호는 자유와 평등을 대학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셨다. 이런 증거는 김흥호가 목회한 기간 이화여자 대학교회에는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두지 않았으며 오직 목사와 신도만이 있었다는 것에 있다. 또한 김흥호는 일요일 주일에 한 번만 중강당이나 대강당에서 예배를 보았으며 교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도 교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김흥호 목사는 기존 교회의 관습을 허물었으며 목사 월급조차 받지 않으려고 했으며, 결국 자신을 위하여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 김흥호

1) 원제는 *Von weltlicher Obrigkeit, wie weit man ihr Gehorsam schuldig sei*

는 교수와 목사로서 월급을 받았지만 자신을 위해 쓴 것은 한 달에 머리 한번 깎는 것이라 설교에서 고백했다. 김흥호는 교회에 헌금을 강요하는 한국 교회의 비성서적 전통을 허물고 성서적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김흥호가 퇴임한 후에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헌금을 말하신 목사님 한분이 계셨고 그 외에는 설교 중 헌금을 말씀 하신 목사님은 없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이는 80년대 이후에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압박했던 시대였기에 종교개혁을 일어났던 중세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 김흥호 선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단독자의 신앙을 사셨으며, 신도들에게도 신앙과 그 실천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김흥호의 설교와 기도는 성령이 임하는 듯 명료하고 영적인 힘이 있었다. 선생은 동서양의 고전을 섭렵하셨고 그 속에 내포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다. 따라서 김흥호의 연경반에는 스님들까지 왔었고 김흥호가 원했던 대학교회는 타종교를 포용했으며 선조의 문화와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알려주는 다원적인 신앙과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다원주의 신앙은 아니다. 김흥호는 대학교회에 안병무 교수의 민중신학이나 변선환 교수를 초청하여 다원주의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했으나 김흥호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그의 선생인 다석의 신앙을 계승한 것에서 가능했으며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서 타종교를 받아들인 것이지 이것으로 그가 다원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김흥호의 기도는 영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만이 주는 힘이 있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은 김흥호가 근본체험을 했고 변화되었기에 가능하다. 그것이 시간제단이며 종교체험을 겪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김흥호는 가톨릭 성당의 교황이나 교회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던 비성서적 중세의 전통을 허물어 버리셨다. 김흥호는 자신의 내면에서 겪은 근본체험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종교체험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과거와 미래가 김흥호로 모이는 정점(靜點, still point)이자 가온찍기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생사를 초월한 선생이 예수를 만나야만 나올 수 있는 경지이다. 김흥호는 지와 행이 일치하는 모순의 통일인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이루셨고 우리들이 평생 동안 본받아 할 선생이라는 목표를 교회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셨다.

### 3) 저항과 자유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Wittenberg Castle Church)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을 보고 “성서의 권위는 교황에게서 온다. 교회에서 결정하여 수행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는 이단이다”라는 답변을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받는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따라 내 판단으로 당신과 그 문서를 거절하고 부정한다”고 반대 의견을 말하고 교황청과 단절한다. 루터는 진리를 독점하는 교황의 권력에 저항했으며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와 싸웠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으나 본질적인 것은 성서의 말씀을 루터가 따른 것이다. “자유가 무엇으로 부터의 자유를 뜻하려면 그 자유는 저항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양명수 153)는 것은 저항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루터는 교황과 교회의 권력에서 만인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고 교회와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이 빛을 본 양심의 자유를 찾아 주었다. 루터의 저항의 의미는 김흥호의 신앙에도 볼 수 있다. 김흥호는 권력에 맞서서 싸우지는 않은 것은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흥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항하면서 자유를 찾았다. 자유를 찾았다는 것은 복음을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김흥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 했으며 이런 그의 신앙은 교회를 개혁했던 신앙이며 기존교회에 대한 저항이다. 김흥호는 하루 한 끼를 먹는 약속을 실천했으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가장 힘든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다.

루터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1523)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였다<sup>2)</sup>. 두 왕국이 구분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하신다<sup>3)</sup>.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직접 통치하는 인간 내면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반면에 국가와 같은 세상나라는 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강제로 통치하여 평화를 만드는 군주의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군주의 정치적 권력을 통해 간접으로 인간의 외부행위를 통치하신다(양명수 222). 루터는 「소 교리 문답」의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한다(『루터선집 9』 390).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은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은 현실의 세상에서 이뤄질 수 없다. 루터의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나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세상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인간은 원죄가 있기에 탐욕으로 가득차서 죄를 지을 수 있기에 정치권력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간접으로 통치하신다. 루터의 이 말은 개인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는 구원을 자기 밖의 어떤 장소에서 찾지도 않고 죽은 후의 저 세상에서도 찾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 의미도 있어서 “세상의 법이 아닌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 실체”라는 뜻이 있다(양명수 재인용 33). 따라서 루터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의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을 바랄 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온전히 이뤄질 수도 없으며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법이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며 세상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다. 루터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세상을 바꾸는 일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규율을 따르는”(『그리스도인의 자유』 『루터 선집 5』 329) 것에 관심이 있었다. 루터는 하나님 나라는 사후의 천국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의 영혼에 임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다.

김흥호 선생도 일제통치와 해방,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사변 그리고 유신과 민주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비극과 부정 그리고 부패를 모두 체험하셨다. 비민주적이며 악이 판친 시대상황에서도 선생은 한 번도 정부비판을 하지 않았으며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김흥호 선생이 세상나라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현실에서의 모순과 부조리를 아셨지만 세상의 현실을 선생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원죄로 인하여 죄와 악의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나라 조차도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인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역사에서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신앙을 침범할 때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한 예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16세기 프랑스의 위그노 혁명이다. 국가 권력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신앙을 침범하면 저항한 예는 장 칼뱅의 후예들인 청교도인들이 일으킨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다. 공동체의 신앙을 중시한 칼뱅의 저항처럼 다석의 제자가운데 함석헌 선생은 70년대부터 90년대에 까지 집단적인 저항으로 민주화 투쟁으로 정치적 저항으로 실천하셨다. “루터는 아무도 영혼에 명령해서는 안 되고 명령할 수도 없다. 아무도 하늘에 이르는 길을 영혼에 가르쳐줄 수 없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GW 383)고 말했다. 여기서 루터가 말한 영혼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

2) 우리는 아담의 후손과 모든 인간을 두부류로 나누어야 한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다른 부류는 세상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밑에 있다.

3)

이며 교회나 국가도 개인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뜻이며 영혼이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이며 직무상 벌어지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루터의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자율적인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 하겠다. 16세기에 루터가 외친 이 선언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도전이요 저항이었으며 이런 점에서 자유는 일종의 저항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루터의 후계자들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으로 혁명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에 반하여 칼뱅은 내면의 신앙을 침범하면 집단의 신앙을 지키는 방식으로 국가권력에 도전하고 신정정치(神政政治)를 실현했다. 칼뱅주의자들은 16세기 제네바와 프랑스의 쾰빙글리의 신학으로 위그노 전쟁에서 17세기 네덜란드와 영국의 청교도혁명에서 그리고 18세기 미국에서 영국에 대한 독립혁명을 통하여 기존의 폭력적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되찾았다.

한국에서 국가에 집단적 투쟁으로 맞선 분은 함석헌 선생이나 이에 반하여 김홍호 선생은 국가의 권력남용에도 초연했으며 내면의 신앙에만 집중하셨다. 김홍호는 세상이 변화될 것을 바라지도 안했으며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뤄지기를 바라지도 않으셨다. 이런 점에서 루터의 정치관과 김홍호의 신앙은 일치한다. 김홍호는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다고 보았고 하나님이 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며 세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보신 것 같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김홍호도 내면의 신앙에만 관심이 있었다. 김홍호는 제자를 육성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내면의 신앙에 초점을 맞춘 마르틴 루터의 신앙과 김홍호의 신앙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루터는 내면의 신앙을 국가가 침범하지 않는다면 권력에 맞서지 말라고 했다. 루터는 칼뱅과는 달리 법을 만들어 진리라도 삶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루터는 법을 강제하지도 않았다. 법을 강제하면 복음의 진정한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홍호 선생의 신앙은 선악의 이데올로기로 마녀사냥을 만든 청교도의 신정정치에 반발하여 자연으로 돌아갔던 미국의 초절주의자(Transcendentalist)처럼 세상의 권력에 대립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김홍호의 신앙은 마음의 내면의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신앙의 본질인 자유를 실천하신 다석의 신앙에 가까우며 그런 점에서 다석의 제자이다. 김홍호는 식색을 초월하여 사시면서 세상의 권력과 거리를 두었으나 세상 속에 사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 천국을 가지고 사셨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천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선생은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고난이며 죽음이며 또 부활이며 모순이자 영원한 생명이다. 선생은 국가라는 권력의 남용에 무저항으로 저항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루 한 끼를 드시면서 “오 늘”을 무저항으로 실천하셨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성서의 말씀으로 김홍호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사셨고 마음에 천국을 실현하여 사셨다.

## 마무리

루터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의 교회가 가졌던 기득권, 즉 교황과 교회의 권력을 일반 신도에게 양도하는 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가지는 혁명을 일으켰다. 비민주적인 정치 구조인 군주제에 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시민혁명은 루터가 주목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루터의 만인사제설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황의 특권을 일반



시민도 사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중세 시대의 종교적 근간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신학은 “바깥에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신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루터는 오직 내면의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양명수 121). 중세의 스콜라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 루터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죄와 고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의 고난을 체험한 상징이다. 루터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각성시킨다. 그래서 루터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장소가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루터는 삼위일체의 성령의 하나님이 내면의 마음에 임재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중세의 천국의 개념을 뒤집었다. 죄로 가득 차 원죄로 태어난 인간은 선을 행할 때에도 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이며 이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계승한다.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인간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Justification by faith, 以信稱義)는 신학이론을 「로마서」에 의지하여 정립했다. 그러나 칼뱅은 이신칭의뿐 아니라 성화를 중시하며 실천을 중시하는 공동체 신앙을 강조하였다. 성화의 실천은 또 다른 행위에 갇히는 딜레마였다. 면죄부를 팔아 교회건축에 집중하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속적 권력을 휘두르고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타종교를 이단시하고 화형에 처하는 상황은 당시의 중세의 가톨릭이었다. 이런 교회의 폭력과 부정과 부패에 루터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칼뱅과 그의 후계자들인 청교도들은 중세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여 엄격한 행위의 실천을 요구하였다. 강압적인 행위에 갇힌 청교도의 신앙은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이 저지른 부패와 딜레마를 반복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한국 교회의 종교적 현실은 중세의 현실과 다르지 않으며 이런 현실에서 김홍호 목사는 개혁적 신앙과 학문 그리고 자발적인 실천으로 목회하였고 다석 유영모의 제자로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 한국 교회에 큰 개혁적 신앙의 공헌을 이뤘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아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다. 루터 종교개혁 502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고 개혁적 신앙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김홍호 선생은 다석을 만나 후에 35세에 시간 제단 즉 가운을 찌는 근본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과 한 끼만을 먹는 약속을 한다. 김홍호가 35세에 근본 체험을 한 것은 루터가 번개를 피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 사건과 유사하며 바울도 그런 근본체험을 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유사하다. 일식을 하겠다는 김홍호의 결심은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십자가는 고난이며 죽음이다. 김홍호는 십자가의 죽음을 자아의 죽음으로 보았다. 김홍호에게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비인간적이며 가장 견디기 것으로 식색을 초월하는 것으로 한 끼를 먹는 결심이며 자아가 매 순간 죽는 고난이며 십자가의 길이다. 김홍호가 일본 와세다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목사의 길에 들어섰고 다석을 만나고 일식하기로 결심하여 소천 할 때까지 평생 지속된 것처럼 번개를 만나는 경험을 한 후에 루터가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고 자신의 죄를 극복하려고 고행을 실천한 것은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중요한 시작이며 체험이다.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가톨릭의 중세인들에게서 구원은 행위에 구결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고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후에 중세의 교회가 강조했던 행위보다는 마음의 자유를 루터는 중요하게 보았다. 아퀴나스 신학에서 이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즉 행위의 강조로 귀결되었고 행위로서 판단하는 관행이 되었고 결국 돈을 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이 되었다. 중세인의 신앙을 반영한 단테의 『신곡』에는 죄의 결과가 지옥에서의 벌이라는 행위로 판단되는 신앙으로 실천이라는 행위가 중요했다. 김홍호에게도 행위의 실천은 중요한 신앙이었

다.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고 김흥호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만 그는 행위의 신앙을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더욱이 김흥호는 한 끼를 먹는 행위를 기쁨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중세인들이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하여 고행을 한 것과는 달랐다. 김흥호가 고행이 일식을 기쁨으로 평생 실천한 것이 중세인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그의 삶을 매일 보고 함께한 가족의 증언과 그가 쓴 많은 글을 보면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김흥호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행위를 강조한 중세인들의 신앙과 같으나 기(氣)가 뿜어나는 자발적인 신앙이었다는 점에서 중세인들의 신앙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성경과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개신교는 행위로 구원 받는 중세인들이 가졌던 비성서적 관행을 거부했다 그러나 츠빙글리와 칼뱅의 신앙인 행위나 실천을 강조한 것을 보면 행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김흥호가 기쁘게 행위를 실천한 믿음은 중세의 교회에서 믿음이 없이 행위만을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중세의 교회가 강요했던 행위의 신앙에 대하여 루터는 행위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총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강조했다. 김흥호의 신앙도 이런 점에서 루터의 신앙과 같다. 루터와 김흥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공통된 신앙을 가졌으나 김흥호는 실천하는 삶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루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유를 느끼면서 행함을 강조했다 김흥호는 기쁨으로 행하여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김흥호가 한 끼만 먹고도 강의와 연구에 정진하고 기쁨으로 산 것은 루터가 강조한 내면의 신앙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김흥호는 국가가 위험이나 권력의 부패에서 권력에 저항하지 않았고 내면에 소리인 마음과 양심의 신앙이 부르는 소리인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이것은 내면의 신앙을 침범하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을 인정한 루터의 신앙과 일치한다. 식색을 초월해 산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이다. 김흥호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다석을 만나고 가온짜이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다석의 선생은 예수이고 김흥호의 선생도 예수이다. 김흥호는 자신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흥호가 다석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함석헌 선생이 국가의 권력 남용에 공동체로서 저항했다면 김흥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심과 폭력 그리고 욕망을 보았고, 원죄를 끊기 위하여 무저항 저항의 길을 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서 고난의 한 끼를 실천했다. 김흥호가 한끼를 실천한 신앙은 말과 행위를 기쁨으로 일치한 다석의 제자라는 증거이며 김흥호는 마음의 자유를 중시한 루터의 신앙에 가깝다. 김흥호는 스승인 다석의 신앙과 사상 그리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수용하였고 다석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사색」에서 맑고 명료한 한글로 그의 신앙과 사상을 표현하였다. 김흥호가 목회한 이화여자 대학교회에는 행정도 조직도 없으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았다. 또한 김흥호는 예배시간에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위하여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김흥호가 목회한 기간에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대강당과 중강당에서 예배를 보았다. 김흥호는 예배를 볼 때도 중강당과 대강당에서 설교를 하셨다. 80년대는 과거의 중세 시대처럼 교인들에게 교회 신축을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으나 김흥호는 행정도 조직도 없고 헌금을 강조하지도 않는 교회를 신앙의 이상으로 실현하였다.

종교개혁 당시 재세레파(Anabaptist)들의 후손인 메노나이트(Mennonites)들이 신약성서에 근거한 비폭력주의를 주장하여 평등과 평화를 중요시한 것처럼 김흥호도 교회에서 평등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행정이나 조직을 최소화하여 교회를 운영하셨다. 장로나 권사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없이 교회는 자발적인 봉사와 기쁨으로 운영되게 했다. 김흥호는 45년 동안 일요일 아침에 연경반에서 성경을 비롯하여 동양의 불교, 노자와 장자 그리고 유교의 고전뿐 아

나라 서양의 고전 까지 제자들과 함께 읽었으며 이런 고전들을 성서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김흥호는 성경뿐 아니라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45년 동안 기쁨과 거저로 행했다. 이런 그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으로 타종교에 대한 포용과 관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했다고 김흥호는 설교에서 자주 말했다. 따라서 불교의 스님조차 일요일 아침 김흥호의 연경반 강의에 참석한 것은 김흥호가 루터의 개신교 신앙을 계승한 것 뿐 아니라 다석의 기독교 신앙을 계승했다는 증거다. 가톨릭에 반발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한 루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으나 츠빙글리와 칼뱅종교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민주적 혁명을 이루어 정치와 종교를 일치 시켰다. 루터는 국가에게 하나님의 간접 통치의 권력을 부여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마음에 있다고 하여 교회가 가졌던 정치적 권력을 빼앗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다. 이런 관점에서 루터는 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을 만나는 권력을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여 그 권력을 개인에게 이양시켰다. 김흥호는 기존 교회가 가졌던 목사의 권력이나 영향력도 포기했으며 헌금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헌금을 많이 내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설교했다. 그는 또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강당에서 예배를 보았다. 김흥호는 인간적인 욕심을 박탈하는 삶을 실천하였다.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며 금욕하는 삶을 실천하였으나 행위만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교인에게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기가 뿜어나는 마음으로 실천했다. 김흥호는 타종교를 무시하지 않고 전통의 일부로 보고 대화했다. 이런 김흥호의 신앙은 기독교 이천년의 역사가 타 종교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통하여 서로를 정복하는 증오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그가 실현한 평화를 정신은 이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평가되어야 한다. 오늘 날 민주적인 정치 혁명을 도래한 칼뱅의 개신교는 전통 기독교로 인정받아왔으나 재세례파를 배척하고 학살한 증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흥호는 35세부터 93세 까지 한 끼를 드시면서 45년간 연경반에서 제자들을 거저로 가르치시며 타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전통의 일부로 수용하는 신앙을 가졌다. 기독교가 로마의 철학을 받아들인 것처럼 김흥호는 다석의 제자로 한국의 전통을 수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서양의 고전에서 찾고 실천하는 삶을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였다. 또한 그는 다석의 제자로서 그의 신앙을 받아들여 계승하여 예수 가르친 평화를 이 땅에 실천한 진실한 선생이며 프로테스탄트 목사였다.

## Works Cited

- 루터, 마르틴. 『루터선집』, 지원용 편, 서울: 컨콜디아사, 1993.  
----- 『루터선집 5』, 지원용 편, 서울: 컨콜디아사, 1993.  
----- 『루터선집 9』, 지원용 편, 서울: 컨콜디아사, 1993 .  
김흥호, 이정배 편. 동양사상과 신학 서울: 솔, 2002.  
양명수.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코프, 토마스, 「종교개혁이 뜻하는 것」, 『루터 사상의 진수』, 지원용 편, 서울: 컨콜디아사,  
1986.